

현 불 뉴스

일각·경보스님 49재

조계총림법장 회광당일각 스님 49재가 지난 10일 송광사대웅전에서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또 서경보스님 49재가 지난 12일 경남 의령 일불사와 서울 법왕사에서 동시에 열렸다.

조계종총회 2일부터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설정)는 제122회 임시중앙총회를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한다.

법왕사 백교좌법회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지난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백일동안 제6회 법화신립백교좌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백교좌법회는 매일 오전 10시 참회정진기도(108배)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백중맞이 경로잔치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오는 28일 제9회 백중맞이 경로잔치를 봉행한다. 이번 경로잔치는 길놀이로 시작하여 효자효부시상식, 장기자랑, 연예인 초청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8·15특사 재검토 주장

실천불교전승가회(공동의장 천하·지선)는 지난 14일 '정부의 8·15 특별사면조치를 보며'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8·15를 맞아 특별사면 및 복원키로 한 김중취(윤곡비리) 조기현(상무) 이형구(대출비리)등 10여명은 엄청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로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불교유아교사 수련회

불교유아인교사연합회(회장 영담스님)는 지난 3~5일까지 김천 직지사서 제23회 유아교사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유아예절교육, 불교연구동화, 불교인형극 등이 진행됐다.

불기협 하반기 연수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9월 7~8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하반기 기자연수를 실시한다. '취재보도와 인권침해' 강의(강사 임병국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와 분과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일연·원효·만해·춘원 기념관 세운다

정신문화 불사 '새바람'

은해사·백담사·봉선사등 추진

사찰의 건축불사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들어 고승들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는 뜻을 담은 불사는 은해사 봉선사 등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단순한 사찰건축불사가 아니라 '정신문화불사'라는 새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은해사(주지 법타)는 일연스님이 주석하며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인각사의 옛모습을 되살리고, 이곳에 일연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해사는 10월 10일 일연학연구원을 발족하고, 인각사 10년 복원불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차로 내년에는 부지확보와 함께 보각각사비를 복원한다.

법타스님은 "일연스님은 <삼국유사>를 통해 후손들에게 자주적 민족·역사교육을 일깨운 위대한 선각자"라고 강조하고 "이번 불사는 일연스님의 자주적 의지를 이어받는 뜻이 담겨 있다"

마근스님은 "백담사는 더 이상 전두환씨의 유배지가 아니다"라며 "만해스님의 업을 이어받는 정신적 자양분을 얻어가는 역사·문화공간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원사(주지 대운)도 개회기 의교활동을 펼치던 개회승 동인스님의 기념표석을 경내에 세우는 한편 기념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이같은 불사에 대해 김동현 문화재단연구소장은 "불교가 비로소 각박한 세상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반기며 "이곳 뿐만아니라 전국 주요사찰이 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정신문화의 도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통일기원법회' 전국서 열려

광복이돌 호국영령추모등...北·美서도

8·15광복 51주년을 맞아 조국광복의 참뜻을 되새기고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통일기원법회가 전국에서 봉행됐다. 실천불교전승가회(공동의장 천하·지선)가 지난 11일 용산기독교관에서 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이 지난 14~15일 양일간 조계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등에서 남북한수재민돕기 거리실천행사를, 통일기원법회 등을 개최했다.

또 대성사(주지 도문)는 지난 15일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하여 가운데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8·15 남북통일발원 영가천도법회를 봉



수해희생자 합동위령제

조계종 총무원회는 지난 14일 봉선사 청평루에서 경기 강원북부지역 수해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 및 각 부장, 이인제 경기도지사, 이한동 이상현 홍문중국회의원, 김중해 경찰서장, 전성배 군수합참의장 등 각 기관장을 비롯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합동 위령제에는 경기도 김원도청, 연천·파주군청 군부대 및 기타 수해지역기관 10곳이 참여했다.

동쪽나라' 복간 본격 논의

월간 <동쪽나라>(불자사 발행) 복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지 89호 참조> 조계종포교원은 지난 12일 <법회와설법> 편집위원회의에서 <동쪽나라> 복간과 관련 "포교원이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린이단체와 불자사 등 관련단

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동쪽나라> 복간계획안을 수립해 빠르면 9월초 개최되는 중앙총회에 제출기로 했다. <동쪽나라> 복간과 관련 불자사는 △재단 등 유력한 곳에서 인수해서 발행 △재단 등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안 △재단 어린이단체 불자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결성해 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철오스님은 어린이지도자연합회에서 지도자용으로 발행하는 <동원>을 <법회와설법>에 통합하고, <연꽃>을 <동쪽나라>와 통합하여 종단의 예산협조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교문화제전·영산재 일정 확정

한중일 불교우호서울대회 준비 마무리 '순조'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오는 9월9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 기간동안 영산재와 불교문화제전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어 한국불교교원회를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가 주관하는 영산재는 9월11일 동국대학교 대운동

장에서 5천년 한민족의 역사 이래 희생된 유주부주의 고혼을 천도하고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축원하는 전통의식으로 펼쳐진다.

불교문화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게될 불교문화제전은 불교TV 주관으로 9월5일부터 14일까지 여의도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불교문화제전에는 한중일 삼국의 불교문화를 시대별로 정리한 역사관, 불교미술인 40명이 참가하는 현대미술관, 각 종단의 역사현장자료를 전시하는 종단관, 불교영화 bn 제작프로그램을 상영하는 영상관을 비롯 공예품관, 사찰음식전시관, 생활관이 운영된다. 한편 이번 서울대회는 '21세기'에 있어서 한중일불교의 사명'이란 주제로 동북아평화와 세계민중구제, 환경보전, 학술문화정보 교류 등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대회기간에는 한국대표 4백여명, 중국대표 1백80여명, 일본대표 2백여명 등 1천여명의 불교지도자가 참석하며 한반도통일과 세계평화확장을 위한 3국불교계의 공

할로 지정되어 8월1일부터 문화재관리료를 징수하고있다"며 "관료징수에 앞서 동해시가 무무계급 입장료를 1백% 인상해 참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삼화사 경내의 불법시설물 철거 △사찰참배객의 신앙활동을 위해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 철폐 △문화재관리료와 입장료 합동징수 등을 요구했다.

"만성신부전증 범종스님 도입시다"

생명나눔실천회, A형신장기증자 급구

생명나눔실천회(회장 법장스님)는 수행에만 전념해오다 지난날 만성신부전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투병중인 범종스님(56, 보덕암주지)에게 새생명 줄 혈액형 A+ 신장기증자를 찾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지난 6일 스님의 도반들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범종스님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장기증자 및 후원자를 찾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현재 동국대 경주병원 6306호에서 입원해 복막과 혈액투석중이다. 생명나눔실천회 (02)734-8050

해인골프장 반대 고령군민 '한목소리'

3개 대책위 결의대회 700여명 동참

해인골프장 건설저지를 위한 백안인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고령군민 결의대회가 고령 국악당광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해인총림대책위, 대구경북대책위, 고령군대책위 등에서 7백여명이 참가하여 투쟁결의를 다졌다.

간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80여명의 비구스님이 참여한 가운데 해인골프장 전면백지화를 위한 장외활동과 철야농성진을 벌였으며 이 기간동안 해인사대책위는 각 본사에서 대책위원들을 파견하여 10만명 서명운동 돌파를 독려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2일경 해인골프장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종합보고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합동징수 강력 요구"

월정·삼화사 선언문 동해 삼화사(주지 원효)와 동해시가 문화재관리료 징수로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13일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삼화사가 공동선언문을 내고 동해시에 합동징수를 요구했다. 삼화사는 "문화재관리료 개정으로 지난 7월18일 관료료사

ASEM 회의장 건립부지 놓고

봉은사-무역협회 마찰 장기화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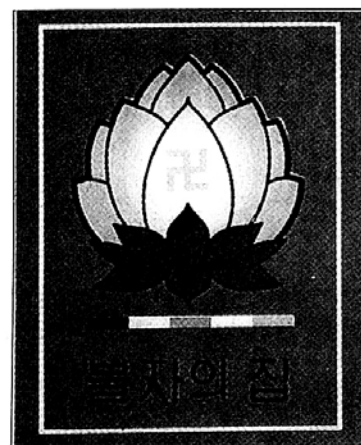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개최와 관련 컨벤션센터 건립 부지가 삼성동 무역센터 내로 선정됨에 따라 봉은사와 무역협회의 마찰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봉은사는 지난 14일 강남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절대건립불가의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무역협회의 마찰이 본격화됐다. 이날 무역협회측은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은 확고부동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봉은사는 신도회를 주축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음 에너지의 원천

주인공, 신봉이러해도 좋고 선장이러해도 좋습니 다. 마음은 일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힘을 베풀어 준다. 에너지를 넣어주지요. 신봉은 에너지의 원천이냐 하시지요. (한여운선)

협찬 한마음선원 범행체회

「불자의 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범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특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급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설법자료 및 범보시 책자 보급 안내①

우란분제의 연원, 우란분제의 의미, 우란분제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Table with 4 columns: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제2부 믿음의 근본, 제3부 우란분제에 얽힌 이야기, 제4부 칠월칠석. Each column lists specific content items.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범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범보시 가격/1권당 1,300원
크기/신공판(15.2cm×22.3cm) 72페이지
캔/뒷장에 범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미리 접수 바랍니다.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